

肝火上炎에 관한 文獻的 考察

表林靜 · 禹弘楨 · 李長薰 · 박재현 · 金秉雲

I. 緒 論

肝은 疏泄과 藏血 等を 主하며 人體의 全身 氣機와 循環을 舒暢 條達시키고 陰血을 貯藏 調節하며 各種 運動機能의 根本이 된다. 肝의 病證은 이러한 生理機能의 遂行이 障礙되면 發生하는데 肝火上炎은 主로 疏泄失調로 肝氣가 鬱結되면 氣鬱而化火하여 轉變하는 예가 많다.⁵⁾

內經²¹⁾에서 肝病證은 肝氣虛 肝氣盛 肝有餘 肝熱 等으로 分類하였다. 清代의 葉天士는 精血衰耗하면 水不涵木하여 木少滋養하기 때문에 肝陽이 偏亢하여 內風이 발생한다고 하여 內風論을 主張하였다. 以後^{3,4,7)} 近來에 이르러서는 臟腑辨證에 대한 研究가 활발해지면서 肝氣鬱結 肝火上炎 肝血不足 肝陽上亢 肝風內動 肝陰不足 等^{1,2)}으로 分類하기에 이르렀다.

內經 <素問·刺熱論>에 “肝熱病者 小便先黃 腹痛 多臥 身熱 熱爭則狂言及驚 脇滿痛…頭痛”이라 하였고, <素問·痿論>에는 “肝氣熱則膽泄口苦筋膜乾”이라 하여 肝火上炎의 症狀과 類似性이 많다. 이는 丹溪가 말한 “氣有餘便是火也”에서^{2,27)} 火의 발생이 氣의 偏盛과 鬱滯에 起因함을 지적한 것으로, 肝火上炎이 肝氣鬱結의 日久化火로 形成되는 機轉을 理解할 수 있다.

肝火上炎의 主症狀은 肝經實火와 關聯된다. 火炎이 頭目에 偏盛하면 頭痛 眩暈 面紅 目赤이 突發의이고 甚하게 나타나고, 血絡을 損傷시키면 出血症이 나타나며, 肝火가 陰液을 損傷시키면 口苦 口乾 口渴 咽乾 尿赤 等を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著者는 肝火上炎의 病因病理 症狀 및

鑑別에 관해 文獻을 中心으로 整理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內經⁷⁾

<素問·刺熱論>⁷⁾:

“肝熱病者 小便先黃 腹痛 多臥 身熱 熱爭則狂言及驚 脅滿痛 手足躁 不得安臥; 庚辛甚 甲大 汗 氣逆則庚辛死 刺足厥陰 少陽 其逆則頭痛 員員 脈引沖頭也.” “肝熱病者 左頰先赤.”

[素問集注]: (1)肝脈이 陰器를 돌아 小腹을 거쳐 올라가므로 腹痛한다. 肝은 魂을 藏하는데 魂이 傷하면 多臥한다. 木火는 氣를 主하기 때문에 身熱한다. 이것은 內因의 病이 氣分에서 시작하여 下에서 上으로 內에서 外로 향함을 얘기한 것이다.

(2)員員이란 周轉이다. 肝臟의 熱이 外에서 發하여 形熱과 相應하여 熱이 甚하여 頭로 上逆하면 頭痛하면서 員轉하게 된다.

<素問·痿論>⁷⁾

“肝氣熱 則膽泄口苦筋膜乾 筋膜乾則筋急而攣 發爲筋痿.”

[素問經注節解]⁹⁾: 肝은 藏이고 膽은 府로 陰陽은 본래 相應한다. 肝은 木에 屬하면서 火를 生하고 火炎이 위로 오르면 膽汁이 上溢하여 口苦한다. 肝은 筋을 主하는데 熱하면 筋膜乾하여 오로지 이것때문에 攣急하여 筋痿가 된다.

<靈樞·邪氣臟腑病形>²¹⁾: “肝脈…大甚爲內痛 善嘔衄.”

[類經]六卷十九注: 肝脈大甚 肝火盛也. 木火交頰 故爲內痛. 血熱不藏 故爲嘔衄.

2. 聖濟總錄²⁴⁾

治肝氣壅實 翳膜遮睛 癩澁難視。甘菊花散方
治肝臟壅熱 三焦不利 胸膈滿悶 睡臥不安。
郁李仁散方

治肝臟壅熱上攻 頭目不利 四肢拘攣。柴胡湯方

治肝氣壅實上攻 頭目筋脈拘急疼痛 大小便赤熱。秦艽散方

治肝實熱 兩眼赤澁疼痛 頭重心煩 上焦壅滯。驅風湯方

治肝經積熱 氣昏血澁 或因食酸物過多 肝中血積不散 氣血俱病 兩脇下非時氣動 每動左脇下有聲 右脇上應 日漸胃脘結塊 使人心腹滿悶 相衝咽喉頭目不利 睡臥不安 如蟲所致。瀉肝湯方

3. 丹溪心法附餘²⁵⁾

又有厥陽臟腑之火 根於五志之內 六欲七情激之 其火隨氣 皆火怒則 火起於肝 醉飽則火起於胃 房勞則火起於腎 悲哀動中則火起於肺 心為君主 自焚則死矣。丹溪 又 火出五臟主病 曰 諸風掉眩 屬肝火動之類 經所謂一水不勝五火之火 出自人為。

4. 醫貫²⁵⁾

木中有火 鬱甚則火不得舒 血不得藏而妄行 但郁之一字 不但怒為郁 憂為郁 怒與憂固其一也。若其人素有陰虛火證 外為風寒暑濕所感 毛閉塞則為郁 郁則火不得泄 血隨火而妄行 郁于經絡 則從鼻而出。凡系郁者 其脈必澁 其人必惡風惡寒 不知者便以為虛而溫補之。誤矣。須視其面色必滯 必喜嘔 或口苦 或口酸 豈有如是證 必當舒散其郁為主 木鬱則達之 火鬱則發之是也。其方逍遙散為的藥 外加丹皮茺藎 隨手而應。

5. 臨證指南醫案¹¹⁾

秦氏，年前肝風眩暈 主以涼血分和陽熄風 一年未發 今歲正月春寒 非此天暖開泄 此番病發

必因勞怒觸動情志 至於嘔逆 微冷今熱 交丑寅漸作耳鳴咽痺 納久留脘中 想少陽木火盛於寅 膽脈貫耳 犯逆之威 必向陽明而後上憑諸竅 脈右塞大 胃逆不降 食味不甘 而脘中逆亂 熏蒸日熾 營血內耗 無以養心 斯寤不肯寐 心搖蕩漾 有難以鳴狀之象。今頭重脘痺 全是上焦為木火升騰 阻遏清陽。

肝者將君之官 相火內寄 得真水以涵濡 真氣以制伏 木火遂生生之機 本無是症之名也。蓋因情志不舒則生鬱 言語不投則生嗔 謀慮過度則自竭 斯罷極之本 從中變火 攻衝激烈 升之不熄為風陽 抑而不透為鬱氣 腕脇脹悶 眩暈猝厥 嘔逆淋閉 狂躁見紅等病 由是來矣。古人有分肝風肝氣肝火之殊 其實是同一源。

6. 王旭高醫書六種、西溪書屋夜活錄²⁶⁾

肝火煩灼 游行于三焦 一身上下內外皆能為病 難以枚舉 如目紅觀赤 瘰癧狂躁 淋秘瘡瘍 善飢煩渴 嘔吐不寐 上下血溢皆是。

7. 續名醫類案¹⁷⁾

薛立齋 治婦人每怒則口苦兼辣 胸痛脇脹 有內或時如刺 此肝肺之火也。用小柴胡加山梔青皮芍歸桑皮而斂。後又勞怒 口復苦 經水頓至此血得熱而妄行 用四物加炒芩炒梔，膽草。一劑而血止。更以加味逍遙散而愈。

陸養愚 治董山妻 每小腹氣上衝 則熱壅頭面 臥不能寐 身戰慄 日中發熱無常 至四鼓五鼓 其熱更甚 熱時腹中有塊 升起經期參前 而淋漓數日 飲食過於平時 而肌肉消瘦 或作陰虛發熱治之 數月不效 脈之數而弦 左尺為甚 曰此肝膽病也。膽主決斷 謀慮不快 則木氣鬱而成火 故於少陽初動之時 氣熱更甚也。因膽之氣既鬱而成火 則肝之血亦滯而成癥 癥非血不聚 非火不升。今塊之上升 熱之上壅 則經所謂 諸逆衝上 皆屬於火也。

8. 證治彙補¹⁸⁾

目不因火則不痛。如白輪變赤 火乘肺也。肉輪

赤腫 火乘脾也。黑珠五色花翳 腎虛火也。神光青睛被翳 肝虛火也。赤脈貫目澁痛 心火自盛也。子和。肝熱則多腫 心熱則多眵 火盛則多痛 水化則多淚 血虛則多癢 氣虛則多澁 精竭則眼昏 神竭則眼黑 風勝則痒 熱勝則脹 濕勝則爛。繩墨。

9. 類證治載¹⁹⁾

凡上升之氣 自肝而出 肝木性升散 不受遏鬱 則經氣逆 爲噎 爲脹 爲嘔吐 爲暴怒脇痛 爲胸滿不食 爲殮泄 爲癩疔 皆肝氣橫決也。此相火附木 木鬱則化火 爲吞酸脇痛 爲狂 爲痿 爲厥 爲痞 爲呃噎 爲失血 皆肝火衝激也。

又肝火...左脇痛 脈洪 耳鳴 時嘔脹腹痛 皆肝火熾騰 濁瘀不肯泄降 宜戒怒節飲可愈。做梔莢湯 山梔，黃連，白芍，牡蠣，丹皮，金橘皮，服效。

10. 辨證錄³⁰⁾

因有大怒之後 週身百節俱疼 胸腹且脹 兩目緊閉 逆冷 手指甲青黑色 人以爲陰症傷寒也。誰知是火熱之病乎。夫陰症似陽 陽症似陰 最宜分辨 此病乃陽症似陰也。手指甲現青黑色 陰症之外象也。逆冷非寒極乎 不知內熱之極 反見外寒 乃似寒而非寒也。大怒不解 必傷其肝 肝氣甚急 肝葉極脹 一怒而肝之氣更急 而肝之葉更脹 血沸而火起 有不可止拂之勢。肝主筋 火氣而筋乃攣束作痛 火欲外焚 而瘀於內結 痰火相搏 濕氣無可散之路 乃走其濕於手足之四末 指甲者 筋之餘也 故現青黑之色 手足逆冷 而胸腹正大熱也。治法平其肝氣 散其內熱 而外寒之象自散矣。方用平肝舒筋湯。

11. 中醫病因病機學¹³⁾

肝火上炎的病機變化 多因郁怒傷肝 氣鬱化火 氣化上逆而致 由于火盛炎上 故肝火病變 多以火熱之氣郁滯本經經脈 上攻頭面爲其主要病理反映。肝開竅於目 其經脈與督脈會于巔頂 故肝火循經上炎 臨床上多爲頭痛 眩暈 面紅目赤 胸

脇疼痛等爲特徵。肝經熱壅 則疏泄太過 氣化橫竄上逆 血爲熱迫 致使肝血不藏 又可造成身熱 心煩急躁易怒 或吐血 咯血 衄血等 肝火擾心和血爲熱迫病變。

膽附于肝 并互爲表裏。肝火上炎 疏泄太過 則膽汁隨氣上逆 而發生口苦 胸滿等見症 至于肝經實火傷耗津液 又往往伴有咽乾 口渴 便秘 尿黃 舌苔黃糙等症。

肝火上炎病變，常見轉歸有三：或因肝火引動心火，由肝及心而發展成爲心火亢盛病變；或因肝火灼津，燥液成痰，痰火交織，則形成痰火擾心之病理；或因火熱劫陰，陰不涵陽，以治肝陽亢盛，而成肝陽上亢之病理。

12. 中醫是怎樣治病的¹⁶⁾

肝經實火：本病較肝氣爲重 較肝陽 肝風爲輕。常見有眩暈 頭痛 耳鳴 耳聾 脇肋作痛 面紅目赤 急躁善怒 尿黃 便燥 或有口苦 咽乾 吐血 鼻血 心煩易怒 甚則發狂 苔黃或乾 脈弦數。本病可見于高血壓，甲狀腺機能亢進，上消化道出血，耳源性眩暈，更年期綜合症等。

13. 肝膽論²²⁾

導致肝火的原因 爲肝經鬱熱化火 或有肝氣轉化 所謂“氣有餘便是火”... 其症狀以頭痛或昏脹 頭面紅熱 口苦目赤 耳鳴等最爲常見。

清肝泄火法：適用於肝郁生熱化火 肝火內郁 其證脇肋內痛 口乾口苦 或日晡潮熱 自汗盜汗 或月經不調 淋帶雜下。常用藥如丹皮，山梔，白芍，澤瀉，云苓。代表方劑如和肝煎，丹梔逍遙散等。

瀉肝降火法：適用於肝膽經實火所產生之疾患。肝膽實火 往往挾有濕熱 或肝氣上逆 其證頭痛脇痛 口乾口苦 小便淋濁 婦女帶下黃臭等。常用藥如龍膽草，生地，當歸，梔子，黃連，蘆薈，黃芩。代表方劑如龍膽瀉肝湯，當歸龍薈丸，瀉青丸。

疏肝泄熱法：適用於肝氣鬱結 日久生熱化火

克土犯胃 其證脇肋疼痛 胃脘脹痛 嘔吐泛酸 嘈
噤噯氣。常用葯如吳茱，黃連，鬱金，玄胡，川楝
子。代表方劑如左金丸，金苓子散。

14. 風火痰瘀論²³⁾

肝火指肝氣亢盛的熱象 多因七情過極 肝陽化
火或肝經溫熱所致。證見頭暈 面紅 目赤 口苦
急躁易怒 舌邊尖紅 脈弦數 甚或昏厥 發狂 嘔
血等。

15. 證治心法要訣⁶⁾

<肝火上炎>

面赤目紅肝火升， 口苦咽紅胸脇痛，
頭暈頭痛煩熱症， 脈弦腦脹龍膽清。

<肝心火盛>

肝心火盛常頭痛， 目赤煩躁每不寧，
精神失常語無倫， 舌紅脈弦臟躁證，
清心養肝寧心神， 解郁舒情配合行，
牛黃清心安宮等， 酸棗仁湯佐重鎮。

16. 中醫內科學概要²⁹⁾

肝火一證 亦為肝臟病變中常見的疾病。其原
因多由於情志不暢 鬱怒傷肝而起；或由腎陰不
足 水不涵木所致。大抵由前者引起的多屬實火，
鬱火，由後者引起的則多為虛火。至其表現亦各
不同 因此在臨床上必須分別論治。

【證治】

實火：凡目赤觀紅，瘰癧狂躁，淋閉瘡瘍，善飢
煩渴，嘔吐不寐，吐血便血，咽痛脇痛，脈來弦勁
有力等證，皆屬實火為患。

鬱火：證見寒熱往來，嘔吐酸苦，或乳房結核，
或頸生瘰癧，或脇肋作痛，其脈鬱結不揚，此為
鬱火為患。

虛火：其證觀紅骨蒸，不寐煩躁，嘈噤易飢，頭
面紅熱，脈象弦細而數 重按無力 或寸關弦數
尺剖細少；此為水不涵木 木旺生火所致。

17. 中醫五臟病學¹⁴⁾

主證：因怒發狂，兩目怒視，頭痛不寐，面紅

目赤，罵詈不避親疏，逾垣上屋，毀物殺人，苔黃
邊紅，脈象弦大而數。

治法：清肝瀉火，滌痰開竅，用當歸龍薈丸。

18. 中醫症候鑑別診斷學²⁸⁾

主要臨床表現：眩暈頭痛，耳鳴如潮，甚則突
然耳聾失听，面紅目赤，口苦咽乾，脇肋疼痛，煩
躁易怒，失眠多夢，或吐血衄血，吞酸，便結，尿
黃，舌邊尖紅苔黃，脈弦數。

肝火上炎症狀見于“頭痛”，“耳鳴耳聾”，“出
血”，“不寐”，“吞酸”，“狂躁”等疾病中。

肝火上炎證可見于多種疾病中 各有臨床特徵，
頭痛：巔頂頭痛，痛若刀劈或脹悶不舒，或自
覺頭剖筋脈跳動掣痛，多伴眩暈不能自持，雙目
紅赤昏花，舌紅苔黃，脈弦滑數。

耳鳴耳聾：暴發耳鳴如潮，或耳聾失听，心煩
多怒，怒則尤甚，夜臥不寧，頭暈疼痛，面赤，口
苦咽乾，舌質紅苔黃，脈弦數。

出血：吐血，衄血，其色鮮紅，脇痛，口苦，咽
乾，心煩善怒，躁擾不寧，目赤多眵，舌紅苔黃，
脈弦數。

不寐：夜寐失眠，不能安臥，易于驚恐，厭聞尋
聲，善怒，心煩，雙目紅赤，口苦咽乾，或伴頭暈
耳鳴，大便秘結，舌紅苔黃，脈洪實。

吞酸：兩脇或胃脘作痛，泛吐酸水，脘痺胸悶，
嘈噤噯氣，口乾而苦，舌紅脈弦數。

狂躁：頭痛失眠，雙目怒視，面紅目赤，甚則狂
亂無知，逾垣上屋，罵詈不休，不避親疏，或毀物
殺人，力過傷人，大便秘結，小便赤澀，舌紅苔黃
糙，脈弦滑數。

19. 韓醫學臨床病理¹⁰⁾

【主證】

頭痛眩暈，耳鳴耳聾，急躁易怒，面紅目赤，脇肋
作痛，口乾口苦，甚則可見咳血，衄血，尿黃便
乾，舌邊尖紅苔黃，脈弦數。如高血壓病，神經官
能症，耳源性眩暈，潰瘍性出血等病可見上述臨
床表現。

【按語】

肝火上攻于頭 故有頭痛眩暈 面紅目赤 ; 肝膽經絡繞耳 肝火循經上壅于耳 故耳鳴耳聾 其特徵爲突然發作 鳴聲如潮 ; 肝火內盛 肝失疏泄 則脇肋作痛;肝火內盛 膽氣外溢 則口乾口苦; 肝火犯肺 犯胃 則見咳血 吐血等證 ; 脈弦數 苔黃爲肝火之象.

20. 甲狀腺疾病의 中醫治療¹⁵⁾

若患者 面紅目赤 口苦咽乾 煩躁易怒 失眠或睡覺不實 或惡夢紛紜 怕熱 多汗 皮膚溫暖 頸前瘰癧 舌紅苔黃糙 脈弦數者 多爲肝火上炎所致.

肝鬱化火 火爲陽邪 陽盛則熱 其傷于人 故見怕熱 喜涼 汗出 皮膚溫暖. 肝氣犯脾 脾失運化 濕痰乃生 痰濕氣血交凝于頸前 故見瘰癧.

兩性突眼(雙上眼瞼浮腫, 結膜水腫, 眼球突出)者, 多屬肝氣鬱結 脾虛痰結 水濕上擾清陽所致. 惡性突眼(眼結膜充血, 眼球刺痛, 眼乾澀, 視物不清, 眼球突出)者, 多屬肝鬱化火 肝火上炎所致.

21. 遼寧中醫雜誌¹²⁾

馬氏認爲 肝火有實火 鬱火 虛火之分. 實火因惱怒傷肝 肝火上逆而成 治以清肝...鬱火因肝氣鬱結 日久化火所致 治宜散之...虛火乃腎水不足 不能涵木 木少滋養則肝陽偏亢 虛火上擾而成 治以壯水制火.

III. 總 括

素問·刺熱論⁷⁾에서 肝熱病에 대해 “熱爭則狂言及驚”이라하여 그 症狀이 精神에까지 미친다고 하였고, 素問·痿論⁷⁾에서는 肝과 膽의 病理的 聯關關係에서 肝氣熱하면 膽泄하여 口苦의 症을 發하여 熱로 因해 肝主筋의 生理的 機能에 障礙를 일으켜 筋痿症을 發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邪氣臟腑病形²¹⁾에서는 肝脈大甚하면 血을 動하게 하므로 善嘔衄한다고 하였다.

聖濟總錄²⁴⁾에서는 各種 治肝法을 提示함에

있어 肝經實熱의 症狀이 頭目不利 眼昏 翳膜 遮睛 癰膜難視 兩脇脹滿 頭重心煩 등이 나타남을 얘기하였다.

丹溪心法附餘²⁶⁾에서는 厥陽臟腑之火는 五志에 根據하고 六欲七情이 그것을 激하게하면 그 火가 따라 일어나는데, 특히 大怒하면 火가 肝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醫貫²⁵⁾에서는 木中에 火가 있어 鬱이甚하면 火가 舒하지 못하고, 血은 藏하지 못하여 血이 火를 따라 妄行하므로 鼻血 吐血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鬱者는 그 鬱을 舒散함을 爲主로 하고 逍遙散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臨證指南醫案¹¹⁾에서는 頭重 腕痺 등의 症狀이 木火升騰하여 清陽阻遏한 것으로, 勞怒觸動情志 등이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또 古人이 비록 肝風 肝火 肝氣 등으로 구분했으나, 情志不舒하면 鬱을 生하고 나아가 化火하여 升之하여 꺼지지 않으면 風陽이 된다하여 實은 同一한 것이라 하였다.

王旭古醫書六種·西溪書屋夜活錄²⁸⁾에서는 肝火가 煩灼하면 三焦에 游行하여 一身上下內外에 모두 病이 생긴다고 하여 그 症狀이 廣範圍함을 얘기하였다.

續名醫類案¹⁷⁾에서는 膽主決斷하는데 謀慮不決로 木氣가 鬱하면 成火한다고 하였다. 婦人이 怒하면 口苦 胸痛 脇脹 등의 症狀이 發하는데, 이는 肝肺之火라고 하여 肝火의 原因이 怒情 등의 情志鬱結과 有關하다고 하였다.

證治彙補¹⁸⁾에서는 目은 火로 因해야만 痛하는데, 특히 肝熱하면 多腫한다고 하였다.

類證治裁¹⁹⁾에서는 相火는 木에 附하는데, 木鬱하여 化火하면 吞酸 脇痛 狂痿 厥痞 呃噎 失血 등을 誘發하는데, 이 모두가 肝火가 衝激한 所致라 하였다.

辨證錄³⁰⁾에서는 大怒之後 마치 傷寒陰證처럼 症狀이 發顯되나, 이는 陽證似陰으로 大怒가 解하지 않으면 肝氣가 急하여져서 血沸하여 火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中醫病因病機學¹³⁾에서는 鬱怒傷肝하거나 氣鬱化火하거나 氣火上逆 등으로 肝火上炎이 惹起된다고 하였다.

肝膽論²³⁾에서는 肝經의 鬱熱이 化火하거나 肝氣轉化하여 肝火에 이른다고 하였다.

風火痰瘀論²⁴⁾에서는 七情過多하거나 肝陽化火하여 或은 肝經溫熱로 肝火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中醫內科學概要²⁵⁾에서는 情志不暢하여 鬱怒傷肝하거나 或은 腎陰不足으로 水不涵木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大概 前者는 實火 鬱火에 屬하고, 後者는 虛火에 屬한다고 하여, 臨床上 반드시 分別하여 論治해야 한다고 하였다.

中醫五臟病學¹⁷⁾에서는 木旺生火라하여 臟腑生理關係의 平衡失調로 肝氣太過하여 形成되므로, 病變이 대부분 實證에 屬한다고 하였다.

IV. 考 察

1. 病因 病理

肝火上炎의 原因은 肝氣鬱結로 氣鬱化火하거나, 或은 烟酒肥膩를嗜하여 溫熱化火하여 發生한다⁵⁾. 또는 木中有火하여 木이 鬱하여 火가 不得舒하므로 發生한다²⁵⁾.

먼저 肝氣鬱結의 原因을 살펴보면 첫째 情志不暢 鬱怒傷肝 등의 精神的 要因에 의한 疏泄機能의 失調^{1,6,13)}에 起因하고, 둘째 外邪의 侵襲이나 陰血이 不足하여도 津血의 流通이 不暢하여 瘀血과 痰濕이 肝經에 鬱滯되거나 肝을 濡養하지 못한 所致로 大別된다^{6,13)}

肝의 疏泄機能을 沮害하는 것은 情志와 매우 有關한데, 驚恐憂가 모두 肝과 有關하지만 怒情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肝氣虛則恐하고 實則怒한다”(靈樞、本神篇) “怒氣傷肝”(素問、陰陽應象大論) “暴怒傷肝”(素問、五運行大論) “怒則肝氣葉矣”(素問、藏論)⁷⁾ “大怒하여 氣逆則傷肝한다”(巢元方、虛勞候) 등에서 怒가 肝病을 일으키는 內因중 가장 중요한 情志가 됨을 알 수 있다.

肝氣鬱結은 日久하여 各種 病證을 惹起하는데 痰氣鬱結, 氣滯血瘀, 肝氣犯胃, 肝氣乘脾 등⁵⁾이 그것이다. 한편 肝火上炎 역시 肝氣鬱結이 日久하여 惹起되는 病證으로, 上記 四種의 病證이 脾主運化 胃主肅降의 障礙를 초래하여 그 症狀이 火熱의 性격을 띄지 않는데 반해, 肝氣鬱結이 內在된 후 大怒 등 情志過鬱, 或 烟酒肥膩 등의 濕熱之品과 같은 誘因에 의해 氣鬱化火한 것이 肝火上炎이며, 鬱證보다는 火熱의 性격이 두드러진다.

그 외 肝火의 病因으로 腎陰不足²⁵⁾을 들었으나, 이는 肝虛火의 原因으로 本標가 모두 實證인 肝火上炎의 직접 原因이라기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肝火上炎의 病因 및 病理는 아래와 같이 大別된다.

- (1) 情志鬱結로 因한 肝의 疏泄失調로 肝氣鬱結 日久化火하여 肝火上炎이 된다.
- (2) 烟酒肥膩를嗜하여 溫熱化火하여 發生한다.
- (3) 肝氣의 升發太過로 陽熱過盛하여 火熱內生한 결과 疏泄失調를 惹起시켜 (1)의 病理를 따른다.
- (4) 肝氣의 太過가 疏泄失調와 無關하게 母病及子하여 木旺生火하기도 한다¹⁾.
- (5) 肝火는 陽邪로서 耗散血絡으로 易傷津陰하여 肝陽上亢을 誘發하기도 한다¹³⁾.

2. 肝火上炎의 症狀

肝火上炎의 症狀은 頭痛, 眩暈, 耳鳴耳聾, 嘔血, 吐血, 鼻血, 咳血, 不寐, 吞酸, 口苦, 咽乾, 面紅目赤, 口渴, 便秘, 尿黃, 脇肋疼痛, 煩躁易怒 등으로 나타나는데 症狀의 機轉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頭痛 : 情志鬱結로 氣鬱化火炎上하면 淸空之府를 上擾하여 氣血逆亂하기 때문이다^{1,28)}. 또한 肝脈은 督脈과 함께 巔頂에서 會하므로 氣가 上逆하면¹³⁾ 發한다. 痛症樣狀은 마치 칼로 베어내듯하며 巔頂부위에 好發한다²⁸⁾.

耳鳴耳聾：暴怒傷肝하면 肝火가 經을 따라 耳로 上壅하면 清竅가 蒙閉되어^{10,28)} 發하며 暴發의 樣狀을 띤다.

出血：氣鬱化火하면 火氣가 交迫하여 陽絡이 損傷을 받아 藏血機能이 失調되어 血이 火熱을 따라 上으로 溢出하거나^{1,28)} 或은 肝火가 肺나 胃를 犯하여¹⁰⁾ 發한다. 出血의 색깔이 鮮紅色으로 心煩善怒, 躁擾不寧, 口苦, 咽乾等을 隨伴한다.

不寐：肝火擾心하여 神不受邪한 所致이다.²⁸⁾ 또한 肝은 藏魂機能이 있는데 怒가 肝火를 動하게 하면 肝魂이 不安하여¹⁴⁾ 發한다. 或은 肝火旺盛하여 空竅로 上走하면 不得睡한다¹⁾. 夜寐失眠하며, 不能安臥하여 易于惊恐하게 된다.

吞酸：疏泄失調되면 氣鬱化火하여 火가 胃로 逆하면 胃失和降하여 發生한다²⁸⁾.

狂躁：惱怒傷肝하여 氣火가 灼津하면 痰이 生成되며 痰火가 壅盛하여 上擾하게 되면 神明 逆亂하여 發生한다^{14,28)}. 狂躁는 頭痛失眠, 雙目怒視, 面紅目赤하고, 甚하면 狂亂無知, 逾垣上屋, 罵詈不休, 不避親疏하고, 或殺人毀物, 力過傷人, 大便秘結, 小便赤澀, 舌紅苔黃糙, 脈弦滑數하게 나타난다.

口苦：情志鬱結로 郁怒傷肝하면 木失條達하고 肝氣上逆하는데, 肝膽은 서로 表裏가 되어 氣鬱化火하면 膽火가 上溢하므로^{9,13)} 口苦하게 된다.

目赤怒視：肝은 開竅於目하므로 肝火가 上炎하면¹⁴⁾ 目赤하게 된다.

面赤：肝火의 病이 心에 미치면 心之華가 面에 있으므로¹⁴⁾ 發生한다.

咽乾, 口渴, 便秘, 尿黃或短赤：肝經實火가 甚하면 傷津傷陰하므로 發生하는 症狀들이다^{13,22)}.

이상에서 肝火上炎은 肝經實火에 起因하므로 上記한 症狀이 대부분 突發의이고 激甚한 實證의 樣狀을 띄며 그 症狀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1) 肝火가 血絡을 損傷하여 迫血妄行하면 吐血, 衄血 등의 出血症이 나타난다.

(2) 肝火가 心神을 動搖시키면 發狂, 罵詈不休, 不避親疏 登高, 毀物殺人, 心煩, 急躁易怒, 失眠多夢, 易于惊恐 등이 나타난다.

(3) 肝鬱이 化火하여 上逆하면 頭痛眩暈, 耳鳴耳聾, 面紅目赤, 胸脇疼痛, 口苦, 吞酸 등이 나타난다.

(4) 肝火가 傷津傷陰하면 口乾, 口渴, 咽乾, 尿黃或短赤, 便秘 등이 나타난다.

3. 肝火上炎과 肝陽上亢의 鑑別

肝火上炎證과 肝陽上亢證은 各各 肝火와 肝陽의 偏盛이 上部에 치우쳐 있고 頭痛, 眩暈, 耳鳴, 耳聾, 目赤 등의 症狀도 類似하므로 그 鑑別이 중요하다.

肝火上炎에서는 頭痛, 眩暈, 耳鳴, 耳聾의 症狀이 突發의이고 激甚하게 나타난다. 舌象과 脈象도 완전히 實證을 나타내어 舌紅苔黃 脈弦數을 띄게 된다. 반면 肝陽上亢에서는 頭痛이 綿綿而不止하며 眩暈하여 눈을 뜨려하지 않고, 耳·目疾患도 漸起하게 되며, 舌象은 無苔나 少苔이고 脈은 弦細하다.

따라서 肝火上炎은 病機가 急性이거나 突發의이고 短期인 경우가 많고 病狀이 甚하게 나타나며, 肝陽上亢은 代체로 緩慢하고 日久하여 漸起하는 편으로 中年以後에 많이 나타난다⁵⁾.

또, 肝陽上亢證은 腎陰이 不足하거나 肝血의 不足 등이 原因이 되어 肝陰이 不足되면 肝陽을 制約하지 못하여 이루어진다^{1,5,13)}. 肝陰의 不足이 基礎가 되며 症狀은 上部에서 熱象을 띠므로 本虛標實로 辨證된다^{1,5)}. 반면 肝火上炎證은 肝氣鬱結이 日久化火하여 發生하고 그 症狀 또한 突發의이고 激甚하므로 本標皆實로 辨證된다⁵⁾. 이처럼 肝火上炎과 肝陽上亢은 그 基礎가 肝陰不足과 肝氣鬱結로 뚜렷이 구분되어 형성되는 機轉 역시 다른 것이다.

肝火上炎의 轉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肝火引動心火로 肝이 心에 영향을 미쳐 心火亢盛의 病變으로 發展한 것과 둘째, 肝火灼津으로 成痰하여 痰火擾心の 病理를 나타낸 것과 셋째, 火熱劫陰 陰不涵陽하여 肝陽上亢이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¹³⁾.

肝火上炎證은 그 症狀이 多樣하게 나타나는 데 이와 有關한 病症으로는 甲狀腺機能 亢進證^{15,16)}, 高血壓, 急性結膜炎의 各種 眼疾患, 急性 肝臟疾患, 急性 膽囊炎¹⁾, 耳炎, 咽喉炎, 更年期綜合證¹⁶⁾, 上消化道出血, 神經官能證¹⁰⁾, 潰瘍性 出血¹⁰⁾, 耳源性 眩暈^{10,16)} 肋間神經炎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V. 結 論

肝火上炎의 病因病理, 症狀 및 鑑別에 關하여 文獻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肝火上炎의 主된 病因病理는 情志不暢, 鬱怒傷肝 等の 精神的 要因에 의해 肝氣의 鬱結이 內在된 後 氣鬱化火한 것이며, 烟酒肥膩를嗜하여 溫熱化火하여서도 된다.

2. 肝火上炎의 症狀은 肝經實火에 起因하므로 突發의이고 激甚하게 나타난다. 그 症狀은 氣火가 火逆하면 頭痛 眩暈 耳鳴 耳聾 面紅目赤 胸脇疼痛 口苦 등이 나타나고, 肝火가 血絡을 損傷시켜 迫血妄行하면 吐血 衄血 等の 出血症을 일으키고, 肝火가 心神을 動搖시키면 不寐 易怒急躁 등이 나타나고, 肝火가 津液을 損傷시키면 便秘 咽乾 口渴, 尿黃或短赤 등이 나타난다.

3. 이 밖에도 肝火上炎은 肝轉變過程 중 肝氣鬱結에서 進一步한 것으로, 肝陽化風 肝風內動의 基礎가 된다. 또한 肝火上炎의 症狀은 肝火가 肝經 이외의 血, 神, 津液 等 영향을 미친 損傷 정도와 複合의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外一人,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p.141, 158, 159, 330, 418.
2. 金賢濟 洪元植編著,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219.
3. 朴贊國, 病因病機學. 傳統醫學研究院 1992, pp.333, 334.
4. 朴贊國編著, 藏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185.
5. 全國韓醫科大學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2, pp.32-36, 41,47.
6. 柯雪帆主編, 中醫辨證學. 上海中醫學院出版 1987, p.172.
7. 郭霽春編著, 黃帝內經素問.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P.195, 266.
8. 盧弟, 證治心法要訣. 青海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314, 317.
9.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80.
10. 北京中醫學院, 韓醫學臨床病理. 서울 成輔社 1983, p.106.
11.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07-410.
12. 孫國杰 徐普文, 中醫治療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41.
13. 宋鷺泳, 中醫病因病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01.
14. 鄂學憲, 中醫五臟病學.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2, pp.52, 53.
15. 伍銳敏著, 甲狀腺疾病의 中醫治療.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4-16.
16. 王明輝, 中醫是怎樣治病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74.
17. 魏之琇編著, 續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22-125.
18. 李用粹, 證治彙補. 大帛 旋風出版社 1986,

p.334.

19. 林珮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p.185-192.
20. 張吉 外一人, 內經辨證辨析. 遼寧城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8.
21. 張隱庵 馬元臺注, 黃帝內經靈樞. 臺北 大聯國風出版社 1987, p.281.
22. 章眞如編著, 肝膽論. 湖北 科學技術出版社 1986, pp.91, 119, 124, 125.
23. 章眞如編著, 風火痰瘀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56.
24. 趙信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787,788(上).
25.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46, 47.
26.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7. 朱震亨, 丹溪心法心要. 山東城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14.
28. 中國中醫研究院 趙金鋒外, 中醫症候鑑別診斷學. 河北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07-109.
29. 中醫學會, 中國醫學名著叢書 中醫內科學概要, 臺北 自由出版社 1988, pp.380, 381.
30.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335, 336.